

##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反尹’ 표방 두 정당 “호남표심 잡아라” 뜨거운 경쟁  
민주, 박지원·이개호·주철현·권향엽 선거 총력 지원  
혁신, 조국 대표 등 지도부 지역 상주하며 ‘전력투구’

영광군과 곡성군에서 전개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재보궐 선거 ‘진검승부’로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반(反) 윤석열’을 표방하는 정치권의 2개 진보 성향 정당이 호남 표심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

을 시작했다.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8일 민주당과 혁신당, 그리고 지역 정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대체로 민주당의 우세를 예상하면서도 혁신당의 돌풍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민주당 vs 조국혁신당 ‘진검승부’ 후끈

민주당은 무엇보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역 민심이 굳건하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영광과 곡성 중 1곳이라도 혁신당에 내줄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받을 상처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수 후보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곡성군수 후보에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은 광주·전남 최다선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5선, 해남·완도·진도)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이 현장을 총괄하고 있다. 주철현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여수갑)도 빈틈없는 선거 지원을 위해 뛰어 들었다. 이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자제하고 전남도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분위기로 읽힌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18일 현재까지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발

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 vs 혁신당’ 경쟁 구도를 부각해 봐야 이로운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정중동’ 행 보라면, 혁신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걸음도 드러나는 ‘전력투구’다. 영광군수 후보에 장현 전 호남대 교수, 곡성군수 후보에 박용두 당 농어민위원장을 공천한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영광과 곡성에서 ‘월세살이’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전 구성원이 영광·곡성 재보

궐선거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혁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당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해 볼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재보궐에서 1곳이라도 승리하면 좋고, 만약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유의미한 득표를 거둔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것이 혁신당의 속내다. 예상대로 된다면 혁신당은 수십년 간 호남에서 ‘절대 강자’ 지위를 누리던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면에 계속 /김진수기자

## KIA, 정규시즌 우승 이제 ‘V12’만 남았다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직행...‘통합 우승’ 도전  
이범호 감독 리더십+투·타 완벽 조화 원동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KIA는 지난 17일 인천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SOL뱅크 KBO리그'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관련기사 16면 하지만 이날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8로 패하면서 KIA는 우승 매직넘버를 모두 소멸시키며 올 시즌 1위를 결정지었다. 8승5패2무를 기록한 KIA는 2위 삼성과 8게임의 승차를 두고 있다. KIA가 남은 7경기에서 모두 패하더라도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KIA는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7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며 통산 12번째 타이거즈의 우승을 노리게 됐다. 올해 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김종국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 KIA 구단은 후임 감독으로 일찌감치 내부 인사를 찍고 이범호 당시 타격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경험 부족 우려가 있었지만 초보 감독답지 않게 이범호 감독은 보란 듯이 시즌 초반부터 줄곧 1위를 질주했다. KIA의 거침없는 독주에는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투·타의 조화가 원동력이 됐다. 특히 리그 최고의 ‘핵타 선’은 이번 시즌 KIA를 우승 후보로 올려 놓았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압도적인 활약으로 리그를 집어삼켰고, 최형우·나성범·소크라테스는 고비 때마다 해결사로서 ‘한방’을 보여줬다. 마운드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 악재가 이어졌지만 ‘대투수’ 양현종이 중심을 잡아줬고 ‘에이스’ 네일이 천군만마와 같은 역할을 하며 리그를 지배했다. 주전과 백업을 가리지 않는 고른 활약도 우승의 밑거름이 됐다. 서건창·이재진·박정우·홍중표 등 백업 자원들도 주축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큰 힘을 보탤었다. 이 같은 KIA의 두터운 선수층은 시즌 도중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에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됐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유감없이 승리

를 견인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신인 해태 시절을 포함해 타이거즈는 1989년 단일리그 출범 후 1991년, 1993년, 1996-1997년, 2009년, 2017년에 이어 7번째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타이거즈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최강자로 군림하며 9차례 우승을 차지했



환호하는 KIA 선수단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 종료 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정규시즌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Today

- 유기농명인...담양다란팍 ‘송홍주’ 9면
- 도전, 청년 창업가를 만나다 12면
- 광주FC, 靑클럽 1차전 7골 축포 16면

## 제16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9.30**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일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은행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용양수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 (장정별)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4년 10월 7일(월)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강당

심사결과발표 2024년 10월 10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개전 및 시상일시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2시

시상장소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예정)

**시상 내역**

1.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명)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명)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 10% 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 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2. 특별(학생) 부문  
· 대상(2명)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명)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명)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3.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자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을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위소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야 함.  
· 초대작가 16"×20" 작품 e-mail 제출 (kjk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함